

# 농촌지역 편부모가족을 위한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 개발\*

## Development of family life education program for single-parent family in rural area\*

전남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부교수 김 경 신

Dept. of Home Management,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ssociate Prof. : Kim, Kyeong Shin

###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 Abstract >

The purposes of this research were to develop a family life education program for single-parent families in rural area and to investigate the effectiveness of education through continuous tests.

For these objectives, the concurrent-type program for single-parent families that emphasized communication skills, psychological strategies, and the importance of social support system was constructed.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was evaluated by pre-, post- and delayed test through 88 single parents and their children and it was analyzed by paired t-test.

The results suggested that the program was effective in improving self-esteem, self-confidence and in decreasing depression. This effectiveness was more in single-father families than single-mother families. But especially in children this effectiveness was diminished as times passed. For maintaining this effectiveness in program, more frequent and continuous following education was demanded.

### I. 서론

최근들어 가족의 불안정성 증가에 따라 편부모와 자녀들로만 구성된 편부모가족은 해마다 증가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편부모가족 증가의 우선적인 원

인으로는 이혼율 증가를 들 수 있는데, 1966년에서 1995년 사이에 우리나라 이혼가구주수는 3만5천에서 27만8천으로 8배 정도 증가하였다. 특히 이혼가구주수는 최근들어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

\* 이 논문은 1997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공모과제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에서 그 증가율이 두드러지고 있다(통계청, 1996).

또한 질병이외에도 교통사고와 산업화의 산물로 인한 중년남성의 사망율이 증가하고 있어 사별 가구수도 455천에서 140만8천으로 3.1배 정도 증가하였다. 더욱이 최근 들어서는 경제난으로 인한 기혼 여성의 가출현상도 빈발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편부모자녀 가구 수는 1966년 39만2천 가구에서 1995년 96만 가구로 증가하였고, 편부가구 비율은 8.9%에서 18%로 증가하였으며, 편모가족 비율은 91.1%에서 82%로 감소하였다. 이처럼 편부모가족의 증가문제는 이제 주요한 사회현상으로 대두되고 있고, 특히 농촌가족의 경우 그 변화가 뚜렷하다는 점에서 편부모가족의 적응과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접근 역시 더욱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편부모가족은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도구적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며 대부분의 가족이 사회관계망의 변화까지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가족내 상호작용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상호작용에도 적응해야 하는 문제를 갖게 된다. 편부모들의 경우 생활상의 어려움 이외에도 상실감이나 재혼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정서적, 육체적 곤란을 겪게 되며(공세권 등, 1991; 김영희, 1996; 조희선, 1991; 한경혜, 1993), 이들의 자녀들은 부모부재 이후에 오는 감정처리나 생활의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정서적 문제와 더불어 증가된 책임량을 완수해야 하는 역할문제, 친구와의 관계나 학업성적에 영향을 받는 학교생활의 적응문제 등 위기적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현은강·이순덕, 1992; Hetherington과 Anderson, 1989; Wallerstein과 Kelly, 1980).

특히 농촌가족은 현대사회의 물질만능주의 사조 속에서 경제적 단위로는 물론 정서적 단위로도 매우 허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들 농촌지역 편부모가족의 적응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할 수 있다. 농촌가족의 변화는 농촌사회의 전반적인 구조변화와 맞물려 그 변화의 폭이 확대되고 있는데, 평균 가족원 수가 도시보다 감소하면서 가족이탈, 노인문제, 자녀교육문제 등 여러 가지 가족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양순미, 1996; 한정자, 1994) 도시와의 소득 수준 차이와 상대적인 빈곤감 상승이 가족구성원의 행복도를 위협하고 있다. 이처럼 영세한 생활조건과

환경으로 인해 가족원에게 정서적 만족이나 안식처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가족원의 불만이 상승될 수 있는데다, 편부모가족의 경우에는 과중한 노동 부담으로 인해 부모가 충분한 역할 수행을 하지 못하여 갈등이 더욱 증폭될 수 있다. 특히 농촌지역 학교 환경 조건의 빈곤함으로 인해 고학년이 되는 자녀들의 이촌취학이 발생했을 때 가정교육과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편부모의 부담은 도시보다 더욱 커지고 있다. 또한 농촌지역으로의 여성 유입이 어려워, 농촌 편부의 경우 장기적인 무배우자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커, 가족내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편부모가정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 위한 대안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가족원 스스로가 인식의 전환을 통해 인적, 물질 자원을 재창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가족원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가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의 하나인 가족생활교육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가족내의 자원이 빈약한 형편인 농촌 편부모가족에 있어 가족생활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정생활 향상을 위한 교육은 학교교육기관 이외에 사회단체에서 평생교육이나 사회교육의 일환으로 교양교육 영역에서 일부분만 다루어 왔을 뿐이고, 대부분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일관성있게 진행되지 못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최운실·강일선, 1989). 특히 편부모가정에 대한 교육은 행정기관에서 주로 요보호 모자가정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지만, 인적자원, 교육시설, 재원 등이 빈약하여 교육환경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한 형편이고, 특히 행정조직의 특성으로 인하여 사회의 빠른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한국여성개발원, 1984, 1991). 더욱이 편부가족에 대한 사업은 편모가족 사업과 조직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이들 편부가족에 대한 교육은 그나마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프로그램 연구에 있어서도 최근들어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김경신, 1997; 김순옥·송현애, 1998; 오윤자·유영주, 1994; 옥선화 등, 1994;

유은희 등, 1996; 최혜경 등, 1994; 홍숙자 등, 1995) 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편부모가족 모두를 위한 프로그램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우리나라 농촌 편부모 가족의 실태에 맞는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실제로 이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효과를 검증해 봄으로써, 농촌지역 편부모가족을 위한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편부모가족의 적응과 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이 적절히 수립되어 행정기관이나 민간단체들의 교육에 응용될 수 있다면, 궁극적으로 효율적인 편부모가족의 기능 강화와 농촌지역 복지수준 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좀더 체계적인 가족생활교육을 통해 편부모가족의 복지가 크게 향상되리라 보고 첫째, 농촌지역의 편부모가족을 위한 가족생활교육의 가장 적합한 유형은 무엇이고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할것인지를 선행연구를 토대로 분석, 구성하여 이를 검토하고자 한다.

둘째, 농촌지역 편부모가족 교육대상자를 중심으로 교육내용에 관련된 항목의 검사지로 사전, 사후, 추후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여 그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셋째, 위의 검증 결과를 토대로 폭넓은 논의와 검토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과 실시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농촌지역 편부모가족에 대한 가족생활교육

가족정책의 수단을 주로 경제적 수단의 지원체계 영역과 비경제적 지원체계 영역으로 나누어 볼 때 경제복지는 가족수당, 자녀보조급여, 출산급여, 대여금제도, 주택수당, 빈곤가족이나 의존적 가족구성원에 대한 사회보장프로그램 등 직접적인 물적 자원 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해당되며, 비경제적인 것

으로는 가족상담 및 치료, 가족생활교육, 가족활동 지원, 가족구성원의 보호(탁아, 탁노 등), 가정봉사 제도, 보건유지프로그램 등 물적 지원이 전혀 배제될 수는 없으나 주로 인적, 심리적 서비스에 관련된 영역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최근들어 사회복지 실천방법에 있어 대인복지서비스 분야에서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점에서 본다면 가족복지정책의 방향도 좀더 비금전적인 서비스, 즉 교육 및 상담, 가정원조서비스, 급식이나 보육 서비스 등에 관한 내용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복지대상 가족 스스로 문제해결을 위한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이들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더욱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가족생활교육은 비단 가정생활의 내면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와 개인을 연결시키는 역동적 개념으로 발달되고 있는 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을 거쳐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있고 전체생활에서 가족생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그 교육의 필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가족생활교육의 목적은 근본적으로는 가족생활을 풍부하게 하고 강화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만 사회문제가 계속 주목을 끌면서 가족과 사회의 연계성으로 그 응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급격한 사회적 변화가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볼 때 건강한 가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족구성원 각자가 끊임없이 적응의 노력을 기울여야만 하는데, 가족원은 재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파악하고 적절한 가족생활기술을 발달시켜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가족생활교육은 가족원으로 하여금 개인과 가족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게 하여주고 더 나아가 사회의 역기능적 현상을 회복시키는데도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가족생활교육에 관한 관심은 지난 수세기 동안 다각도로 폭넓게 지속되어 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가족생활교육이 사회교육 영역의 하나로서 지금까지 주로 여성단체, 여성관련 행정기구, 기타 사회단체 등에 의해 실시되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육환경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한 형편이고 특히 농촌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족생활교육은 담당

교육기관의 여건 부족과 더불어 그 내용 역시 의식 개발을 효과적으로 유도하지 못하여 사회교육에 대한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한국여성개발원, 1984, 1991).

특히 편부모가족을 위한 가족생활교육은 편부모 가족의 다중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내면적 자원을 가시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까지 편부모가족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많이 보여졌지만 이를 가족생활교육으로 연결시켜 연구하려는 시도는 거의 전무하였다.

지금까지 편부모가족에 대한 교육은 주로 모자 복지 담당 행정기관을 통하여 저소득층 편모가족의 구성원들에 대하여 실시되어 왔는데, 우리나라의 행정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편모가족 대상의 가족생활교육은 가족구성원 중에서도 주로 여성가구를 대상으로 한 교양지도, 생활개선 교육의 형식이 주를 이루어 왔다. 그러나 이들 교육은 사회가 변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70년대 후반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 그대로 답습되고 있고 각 기관별 협조체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그 효율성의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한국여성개발원, 1991). 특히 편부모가족의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고 건전한 가족발달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개발을 유도해 주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기적인 사회교육, 자조집단 형성, 전문상담, 가정조성 서비스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들 교육이 여성 가구주뿐만이 아닌 자녀를 포함한 편부모가족 모두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함이 강조되어야 하는데 이에 적합한 프로그램 구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편부가정에 대한 교육은 그나마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서 늘어나는 편부가정의 실태에 견주어 본다면 이들 가족구성원에 대한 체계적인 가족생활교육이 시급하며 이를 위한 조직적인 뒷받침이 강구되어야 한다.

사회교육에 대한 요구도와 관련된 한국여성개발원(1985)의 연구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자원활동교육 대상자 44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소양교육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높고 소양교육 중에서도 가족

관계나 인간관계 등에 관련된 교육을 요구하는 정도(67%)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 여성회관 이용자 1145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한국여성개발원, 1988)에서도 군지역으로 갈수록 가족생활교육에 대한 요구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가족생활교육에 대한 요구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농촌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생활교육이 이루어진 경우는 주로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교양지도, 가족계획, 생활개선, 저축 및 소득증대사업 등에 관한 교육이 주를 이루어왔는데, 이러한 사업들은 1977년 '부녀지도협의회 등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141호)으로 통합되어 보건복지부 가정복지심의관실과 보건국, 농촌진흥청 지도국,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영농지도부가 분담하여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특별히 농촌지역의 가족문제를 중심으로 한 가족생활교육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부녀지도사업 역시 지역적 특성이 크게 고려되지 않은 채 각 기관별로 유사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며 평가방법 역시 10여년 이상 같은 방법이 적용되고 있어 이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지역사회 여성교육 프로그램의 실태를 분석한 이수애(1993)는 특히 농촌사회에서는 교육과 실천과의 연계성이 강화되어야 하므로 조직중심적,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여성교육기관간의 협동체계, 교육기관별 특성화, 프로그램 은행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강애순(1998)도 지역사회 사회교육의 문제점으로 획일적 유형의 교육 프로그램, 교육 수요자 파악 부족, 교육정보 제공 미흡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몇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의 사회교육이 농촌가족원들의 능동적인 참여의식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이 기여한 바 크며, 농촌지역과 같이 교육여건이 취약한 지역에서 중요한 교육통로가 되고 있어 사회문제의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따라서 조직 및 수행과정상의 몇가지 문제점을 개선해 나간다면 농촌가족의 가족생활교육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편부모가족과 같이 민간단체의 손이 미치지 어렵고 교육실시도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조직적인 후원과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농촌지역의 정책기구는 그 규모 면에서 매우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예산의 확보나 인적자원의 부족문제, 또 원칙과 규정을 중시하는 기관의 특성으로 인하여 전반적인 가족생활교육의 다면적 과제를 수행하기에 어려움을 안고 있다. 이러한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교육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체계적인 교육 내용을 수립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특히 농촌지역의 편부모가족은 경제적으로 빈곤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고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여성이 적어 재혼을 통하여 자녀들의 양육문제를 해결하기도 어려운 여건을 갖고 있으므로 이들 가족의 교육 기회 확보와 적절한 교육내용의 전달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 2.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이론적 작업

편부모가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먼저 선행연구를 토대로 편부모가족의 특성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하였으며, 실제 프로그램 구성이 가족생활교육의 조건에 맞도록 몇 가지 검토작업을 실시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편부모가족의 특성과 적응

편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을 구상하기 위해서는 이들 가족의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편부모가족은 우선적으로, 결손된 가족구성원이 행해왔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데, 편모가정에서는 가족부양자로서의 부의 역할, 편부가정에서는 가정관리자로서의 모의 역할이 그것이다. 따라서 과도한 역할 긴장, 역할 과부담을 느끼게 된다(Berman과 Turk, 1981; Weiss, 1979). 그리고 이에 못지않게 가족원에게 발생하는 어려움 중의 하나가 정서적인 문제인데, 특히 절망감이나 책임감, 슬픔, 스트레스

등의 부정적인 정서반응이 지배적으로 나타난다(김영희, 1996; 김정자, 1985; 백경희, 1987; 조희선, 1991; 한경혜, 1993; Amato, 1987; Weinraub과 Wolf, 1983). 그러므로 이러한 역할긴장과 스트레스, 우울감 등을 극복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나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편부모가족의 행복도는 부모자녀관계에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신화용·조병은(1996)은 편모가족의 적응에는 가족의 심리적, 상호작용적 특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고 Hansen(1986) 역시 건강한 편부모가족의 특성은 사회경제적 지위, 사회적 지지 외에 가족간 의사소통, 문제해결 능력, 신뢰성 등과 관련된다고 하였다. 또한 자녀에게 있어서도 부모자녀관계의 질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편모의 적대적이고 통제적인 양육태도는 자녀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Berg와 Kelly, 1979; Peterson과 Zill, 1986) 건강한 가족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이 자녀의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김오남, 1998; 정현숙·서동인, 1996; Booth와 Amato, 1991; Webster-Stratton, 1989). 따라서 건강한 편부모가족관계를 위해서는 부모자녀간 갈등해결 방법, 바람직한 의사소통기술 등을 습득하여야만 한다.

또한 편부모가족의 적응에는 사회적 지지가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친족관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나(안명자, 1994; 조희선, 1991; 한경혜, 1993; Gerstel, 1988) 실제로 친족간의 지원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편부모가족의 경우에는 배우자 친족과 상당히 멀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김정자, 1985; 안명자, 1994). 자녀에게 있어서는 친구나 교사의 지지(김영희, 1995; 정현숙, 1993)도 중요한 영향을 주며, 교육지원이나 지역사회 지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Kennedy, 1985), 가족과 사회의 유기적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회적 활동이나 자율성(Berman과 Turk, 1981), 직업에 대한 태도나 만족도와도 관련되고 있다(Campbell과 Moen, 1992).

특히 농촌지역의 편부모가족의 경우, 부모의 과중한 노동부담으로 인해 역할갈등이 더욱 심각하며

자녀와의 대화시간 부족, 이혼취학으로 인한 자녀와의 격리 등을 경험하면서 부모자녀간 갈등의 폭이 더욱 커질 수 있다. 특히 농촌편부가족의 경우에는 재혼이 용이하지 않은 관계로 장기적인 모결손 상황이 지속되면서(표 1 참조) 자녀양육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가정관리의 어려움이 지속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조직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따라서 편부가족의 적응을 위해서는 과도한 역할 긴장을 해소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자율감이나 자아존중감을 확대시키고, 가족관계의 친밀성과 상호지지를 확장하면서 사회적 지지체계를 확고히 하는 노력이 필요하리라 본다. 그러므로 편부가족에 대한 가족생활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정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특성이 충분히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 2) 프로그램 구성을 위한 조건

프로그램 구성상에 있어 중시된 몇가지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그램 유형에 있어서는 실제로 부모자녀 동시교육의 효과가 높을 것으로 보고 부모자녀 동시교육형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교육현장에서 직접 상호작용 기술을 실천해 봄으로써 학습의 효과를 증가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하였다.

둘째, 프로그램 주제 선정에 있어서는 가족생활교육의 여러 영역 중에서도 피교육자의 교육요구도가 높은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하되, 공동교육에서는 건강한 부모자녀관계와 그 실천적 방법인 대화기술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고 모대상교육에서는 편부가족 어머니들의 자존감과 독립적 능력을 고양시켜 나가야 한다는 의미에서 여러 선행연구(김재인, 1995; 한국여성개발원, 1987; 한정자, 1984)에서 그 중요성을 지적한 여성의식교육을 중심으로 편모의 정신건강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내용을 첨가하였다. 또한 자녀대상 교육에서는 실제로 모자녀 동시 교육에서 주요 주제로 등장하고 있는 내용(김태미, 1994)을 토대로 하되, 특히 부 부재로 인하여 성역할 교육이 부족하기 쉽다고 보고 자녀들의 성역할 정체감 획득을 도와주는 내용을 첨가하였다. 특

히 편부가족 자녀의 사회집단성, 도덕성이 낮게 나타나고 있어(김중우 등, 1995; McLanahan과 Sandefur, 1994), 사회적 지원체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실천하면서 독립적으로 성장하는 사회인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중시하였다.

셋째, 세부 내용 설정에 있어서는 피교육자의 특성상 매우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교육 내용을 필요로 하고 있는 점(김경신, 1997)을 중시하여 내용 구성에 참고하며, 특히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자율감이나 자아존중감 발달, 가족간의 친밀성이나 상호작용 증가, 주변 환경으로부터의 지지체계가 자조조직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였다.

네째, 농촌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교육내용이 되어야 하므로 지역적인 문제 사례를 제시하며 문제 해결 역시 지역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지역사회의 역할과 가치 등을 강조하는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사회적 지지체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됨과 아울러 농촌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III. 연구방법

### 1. 농촌지역 편부가족을 위한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구성

편부가족을 위한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구성은 선행연구들을 통한 이론적 검토와 기실시된 요구도 조사를 토대로 하였으며, 부모자녀 쌍을 대상으로 농촌지역에서 실시되어야 하므로 편부모의 생업이나 자녀의 학업에 미치는 영향을 극소화하기 위하여 단기과정으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주말이나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교육 실시가 용이한 1박 2일 프로그램으로 설정하였다.

### 2. 교육대상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농촌지역의 편모가족과 편부가족의 부, 모, 자녀를 대상으로 가

족생활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대상자는 모집의 용이성을 위하여 1개 도내의 인근 22개 농촌시군지역의 지원자 중에서 편모, 편부가족 각 1쌍씩 총44쌍(편모가족 22쌍, 편부가족 22쌍 총 88명)이 선정되었으며, 이들 교육대상자의 일반적 성격은 <표 1>과 같다. 단, 자녀교육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소년 자녀를 둔 가족을 위주로 선정하였다.

3. 교육평가

1) 측정도구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을 위한 도구는 사전, 직후, 추후 검사지로 구성되었으며, 먼저 일반적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연령, 학력, 소득, 자녀수, 혼자된 기간, 사유 등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설정하였다. 적응력 측정 척도로는 자존감(6문항), 우울(8문항),

스트레스 극복의지(1문항) 등을 설정하였고 이 밖에 교육프로그램에서 다루어질 학습내용에 대한 인지 정도(가족과 사회의 중요성 등)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6문항)을 첨가하였다. 그리고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5문항)의 경우 교육일정상 직후검사에서는 효과검증이 불가능하여 추후검사에서만 사용하였다. 자존감은 SEI(Coopersmith, 1967), SES(Rosenberg, 1965) 등을 참고하였고 우울은 CES-D(Radloff, 1977)을 참고하여 본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또한 본 교육은 교육대상자의 교육참여 용이성을 고려하여 자녀의 방학기간을 이용한 1박 2일 일정으로 실시하였으므로 직후검사시 동일문항의 반복 측정상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응척도의 경우 반복법을 응용하여 측정 도구를 구성하였다. 따라서 전체 문항의 1/2가 사전검사문항으로 이용되었다. 각 문항은 모두 Likert type 5점 척도로 구성

<표 1> 교육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편 모 가 족 (총 22가족)				편 부 가 족 (총 22가족)			
모 연 령	30대	9	40.9	부 연 령	30대	1	4.5
	40대	10	45.5		40대	14	63.6
	50대	3	13.6		50대	6	27.3
모 학 령	국졸이하	6	27.3	부 학 령	국졸이하	16	72.7
	중졸	11	50.0		중졸	3	13.6
	고졸이상	5	22.7		고졸이상	3	13.6
자 녀 수	1명	3	13.6	자 녀 수	1명	8	36.4
	2명	12	54.5		2명	10	45.5
	3명이상	7	31.8		3명이상	4	18.2
홀로된 기간	2년미만	3	13.6	홀로된 기간	2년미만	2	9.1
	2년-5년미만	10	45.5		2년-5년미만	5	22.7
	5년이상-10년미만	9	40.9		5년이상-10년미만	7	31.8
홀로된 이유	사별	15	68.2	홀로된 이유	사별	13	59.1
	이혼 및 유기	7	31.8		이혼 및 유기	9	40.9
자 녀 성 별	남	8	36.4	자 녀 성 별	남	10	45.5
	여	14	63.6		여	12	54.5
자 녀 연 령	11-12	4	18.2	자 녀 연 령	11-12	6	27.3
	13-15	14	63.6		13-15	11	50.0
	16-18	4	18.2		16-18	5	22.7

되었으며 이 때 Cronbach'  $\alpha$  평균값은 자존감 .837, 우울 .784, 의사소통 .825이다.

## 2) 평가절차 및 자료처리

편부모가족에 대한 교육은 1998년 2월(편모가족)과 7월(편부가족)에 각기 실시되었으며 교육실시 전후로 사전검사 및 직후검사를 실시하였고 교육실시 한달후 추후검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평가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된 주요 통계방법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 기초통계와 교육의 효과검증을 위한 paired t-test 등이다. 통계처리는 SAS/PC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프로그램의 내용

#### 1) 프로그램의 기본 구조

\* 프로그램 유형: 부모자녀 동시교육형 프로그램

\* 교육집단 규모(공동강의 기준): 모(부)자녀 20-30쌍

\* 학습방법: 공동 강의 - 강의 및 발표, 토론, 질의 응답

공동 활동 - 인간관계 훈련, 상담 및 복지교실, 대화교실, 편지쓰기, 체육 및 오락 활동

\* 수업단위: 강의는 60분 1단위 기준으로 2단위교육으로 편성하고 활동은 내용에 따라 2단위 이상으로 편성함.

\* 교육내용 지침

- (1) 주제와 내용이 일관적이고 문제해결로 이끌어갈 수 있어야 한다.
- (2)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 (3) 실제적인 활용방법을 제시해 준다.
- (4) 교육대상자의 수준과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 (5) 모자녀 동시교육의 장점 특히 상호 피드백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한다.

\* 학습 진행방법

- (1) 수업은 크게 도입, 전개, 마무리의 순으로 진행한다.
- (2) 도입단계에서 문제를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 (3) 의견제시를 격려하되 다수의 참여를 유도한다.
- (4) 주요 내용을 지침, 활동목록 등으로 요약화하여 제시한다.
- (5)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도록 유도하며 해결책 찾기에 적극 참여하도록 격려하여 그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한다.
- (6) 마무리 단계에서는 강의내용을 요약해주고 실천항목들을 정리 해줌으로써 후속학습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동기화한다.



2) 강의 및 활동내용

< 부모자녀 공동 강의 > ( 공동강의 주제는 편모, 편부가족이 동일하므로 편부가족 내용은 생략)

강의주제	건강한 모자녀관계와 바람직한 대화(2단위)	누적소요시간
목 표	농촌지역에서의 편모가족의 어려움을 토론하고 극복방법을 모색해 본다 농촌사회의 변화에 가족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것인지, 특히 편모의 역할은 어떠한 중요성을 갖는지 인지하게 한다. 자녀와의 원만한 관계유지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게 한다	
1단위 도입	농촌사회에서 편모가정의 구성원으로서 느끼는 어려움 나누기 - 질의응답 실제로 농촌지역 편모가정의 실태가 어떠한지 관련자료 제시 후 설명 사회변화가 가족변화에 미치는 영향 설명 - 농촌사회의 변화, 농촌사회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강의	10분 30분
전 개	부모자녀간 갈등에 대한 의견 나누기 - 갈등 종류,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농촌생활에서 느끼는 부모자녀 상호간 어려움 논의 자녀와의 갈등 해소 방법 제시 - 의사소통의 의미, 중요성 설명	40분
2단위	의사소통의 유형 측정하기 - 측정도구 제시 후 개별 평가 바람직한 의사소통의 방법 학습하기 - 긍정적, 부정적 의사소통의 다양한 예 제시 - 모자녀상 선발, 실연 후 느낌 발표 - 긍정적 의사소통 방법의 개별 연습 격려	60분 90분
마무리	부부제로 인한 대화결손 부분 논의하기 좋은 대화 다지기 - 중점적 개선 내용 강조, 연습의 필요성 강조, 가족원간 지속적 상호평가 강조 개별가정에 부착할 긍정적 대화법 요목표 제시, 배부	105분
	농촌생활에서 부모자녀간 대화의 어려움, 모의 역할과중문제, 주변환경에서 오는 문제, 지역적 문제 등을 중심으로 해결방안 논의하기 개인과 가족과 사회의 관계 강조 - 가족의 질적 기능, 개인 역할의 중요성 강조, 지역내 지지기관, 협조기관 소개 후 종결	120분
준비물	필기도구, 차트 혹은 교육기자재, 대화 평가지, 긍정적 대화법 요목표	

<인간관계 훈련>

활동대상	활 동 내 용
공 동	'사랑의 협상법'-갈등해결훈련 자존감높이기, 서로 존중하기 육하원칙으로 이해하기 '가장 해주고 싶은 것' '가장 해주지 않았으면 하는 것' 신뢰감형성-장님인도하기, 바윗돌들기, 투명 공놀이
부 모	'인생선' 그려보기, '마음의 창' 실습 자존감 높이기: 자신의 장점 표현법 상실감 극복 훈련
자 녀	'자아정체감' 놀이, 체험 공유하기, 사물과의 대화, 자기 각성 훈련, 경청하기, 주의산만 치료법, 감정 조절하기

<상담 및 복지교실>

활동대상 및 주제	활 동 내 용
부 모 복지교실	편모가족 지원 방향 토론 및 제언 자조조직 결성과 활동계획 수립 친교의 시간
자 녀 고민교실	가족관계, 친구관계에 관한 고민 사춘기에 관련된 고민 농촌생활에 관련된 고민 등 상담

<대화교실>

활동대상	활 동 내 용
공 동	듣기기술 실습-적극적 듣기, 온몸으로 듣기 말하기기술실습-나 전달법, '지금-여기' 표현법 일상생활의 사례를 통하여 실습

## &lt;모 대상 강의&gt;

강의주제	사회 속의 나, 가족 속의 나(2단위)	누적소요시간
목 표	<p>농촌여성으로서의 긍정적 의식을 고취시키고 사회인으로서의 삶의 목표를 찾을 수 있도록 격려한다.</p> <p>농촌사회와 가족의 연관 속에서 상호영향 요인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p> <p>가족내외의 과중한 역할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 방법을 인지시킨다.</p>	
1단위 도입	<p>여성의 변화 논의</p> <p>- 전통적 여성상 제시, 오늘날의 여성농민 실태와 비교, 설명(사진, 슬라이드 등 제시)</p> <p>농촌여성의 활동, 역할, 사회적 비중 등을 통계자료를 통해 제시, 당위성 설명</p>	20분
전 개	<p>농촌에서의 여성의 변화에 대한 질의응답</p> <p>농촌에서의 여성활동의 어려움, 편모로서의 제한점 질의응답</p>	30분
	<p>진정한 남녀평등 이해하기 - 남녀평등의 필요성, 실현방법 설명</p> <p>농촌에서의 남녀평등 실현의 어려움은 무엇인지 질의응답</p>	40분
2단위	<p>가족 내에서 평등의 실현 논의</p> <p>- 자녀에 대한 성역할교육 실시 필요성 제시, 특히 부부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성역할 내용 제시</p>	60분
	<p>농촌여성이 직업(농업)과 가족을 양립하는데 따른 문제점 질의응답</p> <p>스트레스를 극복하자! - 농촌편모의 스트레스 과중 논의</p> <p>역할과중에 의한 스트레스는 어떠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 설명</p> <p>스트레스 평가 - 평가지 제시, 배우 후 측정방법 설명</p> <p>스트레스 극복 전략 제시 - 농촌생활에서의 역할분담 방법 설명</p> <p>농촌생활에서의 스트레스 특성 및 해결방법 논의</p> <p>상실감이나 우울이 가족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극복방법 제시</p> <p>&lt;상실감을 극복하는 15가지 전략&gt; &lt;스트레스 해소 체조&gt;</p>	80분
마무리	<p>농촌에서의 여성의 능력개발, 정신자세의 중요성 강조</p> <p>편모의 생활태도, 정신건강이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강조</p> <p>농촌생활의 어려움, 편모로서의 어려움 극복 격려</p> <p>가족과 사회의 교량역할로서 여성의 중요성 강조 후 종결</p>	105분
준비물	필기도구, 사진·슬라이드, 스트레스 측정지, 상실감 극복전략 요약표	120분

## &lt;부 대상 강의&gt;

강의주제	가정경영의 지혜와 기술(2단위)	누적소요시간
목 표	<p>가정과 사회의 이중 역할을 원만히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기술을 함양하게 한다.</p> <p>농촌사회 속에서 사회와 가정의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p> <p>가족내외의 과중한 역할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 방법을 인지시킨다.</p>	
1단위 도입	<p>농촌가정경영의 어려움 질의응답</p> <p>효율적 가정경영의 개념 설명, 편부가정에서의 필요성 강조</p>	10분
전 개	<p>-농촌생활에서의 자원부족 극복 방안 제시</p> <p>-농촌생활에서의 시간관리 전략 제시</p> <p>농촌에서의 자녀문제 질의응답</p> <p>&lt;효율적 자녀 다루기&gt;</p> <p>-자녀욕구를 이해하는 방법, 자신의 욕구를 자녀에게 표현하는 방법 제시</p> <p>-이혼취학, 장거리 통학 등에 관련된 문제 논의</p> <p>-농촌지역에서의 자녀교육 문제, 학교문제 등 논의</p> <p>-농촌지역에서의 청소년 이성문제 특성 검토</p>	30분

<부 대상 강의> 계속

강의주제	가정경영의 지혜와 기술(2단위)	누적소요시간
2단위	스트레스 평가 - 평가지 제시, 배우 후 측정방법 설명 농촌생활에서의 스트레스 관리하기 -농촌생활에서의 스트레스 요인, 편부로서의 스트레스 특성 논의 -스트레스 극복전략, 가족원과 역할 나누기 필요성 설명 상실감이나 우울이 가족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극복방법 제시	60분 80분
마무리	<상실감을 극복하는 15가지 전략> <스트레스 해소 제조> 농촌생활에서의 가정경영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대안들에 관해 논의 사회지지체계의 중요성 설명 - 친족, 친구, 사회기관 등 다양한 지지유형 강조 농촌에서의 재혼의 어려움, 재혼의 장단점 논의 농촌생활에서의 편부의 어려움 위로 - 극복 전략을 실천할 수 있도록 격려 건강한 가족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꾸준히 실천적으로 바람직한 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종결	105분 120분
준비물	필기도구, 사진·슬라이드, 스트레스 측정지, 상실감 극복전략 요약표	

<자녀 대상 강의: 편모지녀, 편부지녀 동일>

강의주제	참된 사회구성원이 되는 길(2단위)	누적소요시간
목 표	남성 혹은 여성으로서 성역할을 인지하고 자율감과 자존감을 고양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한다. 가족, 이웃, 특히 농촌사회 속에서의 동반자 의식을 함양하여 편모가정의 지지체계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책임감 있는 가족구성원으로서의 미래 좌표를 세우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게 한다	
1단위 도입	인간과 사회 바로알기 -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 강조 - 협동과 책임의 진정한 의미 강의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기 - 자신의 지역에서 행할 수 있는 이웃사랑 방법 질의응답 농촌을 사랑합시다! - 농촌과 도시의 장단점에 관한 질의응답 농촌생활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지역사회 사랑의 정신 강조	10분 20분
전 개	농촌에서의 지역사회사랑의 방법 논의 자원봉사 비디오테입 시청: 「증가하고 있는 농촌독거노인을 위한 봉사」 시청 후 감상보고 경험 나누기 - 지역사회 봉사활동의 경험자 선정, 발표 격려 자원봉사의 주의사항 설명	50분 60분
2단위	농촌편모(부)가족에 대한 사회적지지체계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친족, 이웃관계의 진정한 의미를 강조. 편모(부)가족을 지원해주는 법과 정책, 지역사회 조직 연구 남성 혹은 여성으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질의 응답 올바른 성역할 정체감 획득의 중요성 강조 동성 혹은 이성부모의 결손을 사회지원 체계 속에서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설명	80분 105분
마무리	농촌청년운동의 사례 소개 가족과 이웃과 사회는 어려울 때 서로 도울 수 있는 지지체계임을 강조 특히 농촌사회에서의 편모(부)끼리의 자조조직 활동의 중요성을 제시해주고 실천방법을 설명 편모(부)가족 구성원 스스로 사랑을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함을 격려하고 종결	120분
준비물	필기도구, 응답지, 비디오설비 및 테입	

## 2. 프로그램의 실시와 효과 검증

## 1) 프로그램 실시

첫 째 날		둘 째 날	
시 간	활 동 내 용	시 간	활 동 내 용
10:00	교육장 도착	07:00	기상
10:00~10:30	소개 및 친교, 교육전 평가	07:00~08:30	세면 및 운동, 아침식사
10:30~12:30	부모자녀 공동 강의	08:30~10:00	대화교실
12:30~13:30	점심식사 및 휴식	10:00~12:00	편모(부), 자녀 개별 강의
13:30~15:30	부모자녀 어울리기 (레크리에이션 및 협동놀이)	12:00~13:00	점심식사
15:30~16:00	휴식 및 간식	13:00~14:00	편지쓰기와 나눔의 시간
16:00~17:00	사례 및 수기 발표	14:00~15:00	끼리끼리학교, 자조그룹 결성
17:00~19:00	인간관계훈련	15:00~16:00	평가와 정리의 시간
19:00~20:00	저녁식사	16:00~	귀가
20:00~22:00	상담 및 복지교실		
22:00~	취침		

## 2) 프로그램 평가

〈표 2〉 편모가족의 사전, 직후, 추후검사 점수 비교 : M(SD)

		사 전 검 사		직 후 검사 <sup>1)</sup>		추 후 검사		t(사전-직후)		t(사전-추후)	
		모	자녀	모	자녀	모	자녀	모	자녀	모	자녀
자존감	동 일 문 항	12.000 (2.152)	11.545 (1.765)	12.350 (1.927)	12.590 (1.563)	12.479 (1.772)	12.278 (1.588)	.979	3.600***	1.335	2.120*
	비동일문항			12.800 (1.852)	12.363 (1.909)			2.027*	2.880**		
	전 체 문 항 <sup>2)</sup>			12.575 (1.816)	12.727 (1.428)			1.607	3.714***		
우 울	동 일 문 항	11.000 (3.434)	9.272 (3.326)	9.000 (3.685)	9.136 (2.899)	9.536 (2.561)	8.214 (2.665)	-2.214*	-.237	-2.019*	-1.860
	비동일문항			9.100 (2.532)	9.136 (2.587)			-2.778**	-.196		
	전 체 문 항			9.050 (2.828)	9.136 (2.484)			-2.649**	-.232		
스트레스 극복의지		3.450 (0.999)	3.090 (1.342)	4.158 (0.834)	3.318 (1.323)	3.843 (1.001)	3.357 (1.008)	3.986***	.593	2.234*	.163
학습내용 인지도		20.500 (3.576)	21.500 (2.444)	22.842 (3.962)	22.818 (2.839)	22.571 (2.174)	21.971 (2.471)	2.682**	2.018*	2.711**	.182
모자녀간 의사소통		18.750 (3.492)	15.545 (2.925)			19.421 (3.212)	16.332 (2.471)			.627	.880

1) 동일문항의 반복측정상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문항종류를 세가지로 구분함.

2) 평균값 비교의 용이성을 위하여 문항총점/2로 제시하였음.

\*p&lt;.05 \*\*p&lt;.01 \*\*\*p&lt;.001

농촌지역 편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한 평가결과는 <표 2>, <표 3>과 같다.

편모가족의 경우 자존감, 우울 모두 중간점수(15점, 20점)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스트레스 극복의지(중간 3점)나 학습내용인지도(중간 15점), 의사소통정도(중간 12.5점)는 중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 직후검사간 차이는 모의 경우 우울에서, 자녀의 경우 자존감에서 뚜렷이 나타나, 교육직후 효과는 모에게서는 우울을 감소시키고 자녀에게서는 자존감을 향상시켰음을 알 수 있다. 스트레스 극복의지는 모에게서 뚜렷이 상승하였으며 학습내용인지도는 모자녀 모두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추후검사 결과에서는 직후검사에 비하여 차이가 감소하였는데, 자녀보다는 모의 차이가 다소 많이 나타나 자녀보다 모에게서 교육효과가 더 지속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의사소통의 경우 사전검사 결과 점수가 이미 상당히 높았고, 본 교육 프로그램이 단기교육이라는 점에서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

은 것으로 보인다.

편모가족의 경우에는 편모가족과 마찬가지로 자존감, 우울 모두 중간점수보다 낮으나 편모가족보다 자존감은 더 낮고 우울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극복 의지나 학습내용인지도, 의사소통 정도는 중간보다는 높으나 이것 역시 편모가족보다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 직후검사간 차이는 부자녀 모두 자존감에서 효과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으나 부모는 자녀에게서 효과가 더 크며 우울의 경우 비동일문항에서만 그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스트레스 극복의지는 자녀에게서만 상승된 것으로 나타났고 학습내용인지도는 부자녀 모두 상승하였다. 추후검사 결과에서는 편모가족과 마찬가지로 직후검사에 비하여 차이가 감소하였는데, 역시 자녀보다는 부의 차이가 다소 많이 나타나 자녀보다 부에게서 교육효과가 더 지속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편모가족의 경우에는 자녀의 경우 교육효과가 부모보다 크게 나타났으나 효과의 지속력

<표 3> 편모가족의 사전, 직후, 추후검사 점수 비교 : M(SD)

		사 전 검 사		직 후 검 사		추 후 검 사		t(사전-직후)		t(사전-추후)	
		부	자녀	부	자녀	부	자녀	부	자녀	부	자녀
자존감	동 일 문 항	10.000 (2.792)	9.174 (1.957)	11.476 (2.960)	11.316 (1.827)	11.648 (2.756)	11.420 (1.926)	2.165*	3.369***	2.407*	3.574**
	비동일문항			11.952 (2.562)	11.842 (1.893)			2.781**	6.028***		
	전 체 문 항			11.714 (2.559)	11.579 (1.601)			2.624**	5.611***		
우 울	동 일 문 항	13.286 (2.969)	10.474 (3.133)	12.281 (2.006)	9.684 (3.382)	12.051 (2.863)	9.507 (2.871)	-1.105	-1.227	-1.524	-1.362
	비동일문항			11.343 (2.354)	9.048 (2.609)			-2.116*	-2.015*		
	전 체 문 항			11.871 (2.559)	9.500 (2.911)			-1.763	-1.683		
스트레스 극복의지		3.238 (1.091)	3.158 (1.014)	3.286 (1.383)	3.737 (1.327)	3.283 (1.127)	3.543 (1.092)	.156	2.251*	.154	1.711
학습내용 인지도		19.571 (3.187)	20.526 (3.115)	21.157 (2.651)	22.079 (3.563)	20.077 (3.024)	21.135 (2.904)	2.171*	2.063*	2.026*	1.104
모자녀간 의사소통		16.040 (3.302)	19.421 (2.984)			17.579 (3.111)	14.347 (2.904)			2.054*	1.525

\*p<.05 \*\*p<.01 \*\*\*p<.001

은 다소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의사소통의 경우 편부에게서 다소 효과가 나타났다.

## V. 결론

본 프로그램은 농촌지역 편부모가족의 적응능력 향상과 잠재능력 개발을 도와주기 위하여 가족구성원간 상호작용, 사회적응 및 자존감 등의 정신건강 고취를 주요 내용으로 하여 교육내용이 구성되었으며, 실제로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총 88명의 농촌지역 편부모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평가결과 편부모가족 모두 자존감, 우울은 중간점수보다 낮고 스트레스 극복의지나 학습내용인지도, 의사소통정도는 중간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편모가족에 비하여 편부가족의 경우 우울이 더 높고 자존감 등 기타 변인 모두가 낮게 나타났다. 교육직후 효과는 모에게서는 주로 우울을 감소시키고 자녀에게서는 자존감을 향상시켰으며 스트레스 극복의지는 모에게서, 학습내용인지도는 모자녀 모두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편부가족에서는 부자녀 모두 자존감에서 효과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으나 부보다는 자녀에게서 효과가 더 크며, 우울의 경우 비동일문항에서만, 스트레스 극복의지는 자녀에게서만 상승된 것으로 나타났고 학습내용인지도는 부자녀 모두 상승하였다. 추후검사 결과를 보면 직후검사에 비하여 효과가 감소하였는데, 자녀보다 부모에게서 교육효과가 더 지속됨을 알 수 있고 의사소통의 경우 편부에게서만 다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와 교육과정 중의 몇가지 논의과정을 토대로 제언과 더불어 본 연구의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지역 편부모가족에 대한 교육은 단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편모가족보다 편부가족에게서 효과가 두드러진데, 이것은 편모가족에 비해 편부가족의 교육기회가 거의 전무하였기 때문이며, 동시에 편부가족의 적응도가 사전평가 결과 편모가족보다 상당히

낮아 사후 교육효과를 발생하는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추후에는 편부가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자녀의 경우 특히 자존감 등에서 상당한 교육효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교육효과는 그다지 크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농촌지역 편부모자녀에 대한 교육은 자녀의 성장기 동안 꾸준히, 그리고 자주 이루어져야 하리라 본다. 따라서 쌍으로 실시하는 교육도 매우 중요하지만 방학이나 주말을 이용한 수시 교육의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교육과정 중에 편부모 자녀들 상호간 친밀도가 매우 강화되고 있어, 자조그룹결성을 통하여 교육의 지속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 보므로 이러한 집단적 강화기회를 부여해주는 농촌지역 복지조직의 협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가족간 의사소통은 기존의 선행연구(유은희 등, 1996)에서도 지적하듯이 단기간에 향상되기 매우 어렵다고 보아지므로 양적인 교육 확대와 동시에 보다 실천적인 내용으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하리라 본다. 이를 위해서는 피교육자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들이 꾸준히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농촌지역에서 이혼취학, 편부모의 원거리 취업 등으로 부모자녀간 접촉시간이 감소하는 경우 등을 고려한 심층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편부모가족의 경우 생업에 종사하다 보면 교육시간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일회적인 강연 위주의 교육보다는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농촌지역의 산발적 거주 특성을 고려하여 인쇄물이나 정보매체를 이용한 지속적인 교육방법이 요구된다 하겠다. 농촌지역 복지기관에서의 편부모가족 지원 방법도 단순한 경제적 지원보다는 장기적인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다양한 수단을 통한 교육방법이 모색되어야 하겠다.

다섯째, 도시지역의 편부모가족과 달리 농촌지역의 경우 대부분의 편부모들이 영세농업이나 일용근로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인 곤란뿐만 아니라, 자녀교육의 어려움, 다양한 생활상의 불편함 등을 겪게 된다. 특히 앞서 교육대상자의 일반적

성격(표 1)에서 나타나듯이 편부의 경우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여성수가 감소하면서 재혼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농촌지역에서는 장기간 편부가족으로 남아있는 비율이 매우 높은 형편이어서 도시 지역보다 편부가족교육이 더 시급한 형편이다. 그리고 교육실시상에 있어서도 피교육자의 이동거리를 고려해야 하는 등 지역적 특수성이 다양하게 고려된 교육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농촌정착 기술교육 프로그램 등 보다 특성화된 타교육과의 병행교육도 권장할만 하다.

■ 참고문헌

- 1) 강애순(1998). 여성회관 운영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 2) 공세권 · 조애저 · 허미영(1995). 가족결혼의 유형별 특징과 가족정책의 접근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95-03.
- 3) 김경신(1997). 편모가족에 대한 가족생활교육 실태 분석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5(2), 187-199.
- 4) 김순옥 · 송현애(1998). 자녀와의 대화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모형개발 및 효율성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3(1), 93-119.
- 5) 김영희(1996). 빈곤층 편모의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 및 심리적 디스트레스가 부모역할 수행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 6) 김오남(1998). 편모가족의 가족스트레스와 심리적 복지. 전남대 박사학위 논문.
- 7) 김재인(1995). 여성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49호, 5-36.
- 8) 김정자(1985). 편부모가족의 지원방안에 관한 기초연구. 여성연구 3권 1호, 30-78.
- 9) 김종우 · 장환일 · 반건호(1995). 부의 결혼이 청년의 성격요인 및 정신병리에 미치는 영향. 신경정신의학 34권 1호, 216-227.
- 10) 김태미(1994). 모자가정 정서안정 프로그램 평가에 관한 연구.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 11) 백경희(1987). 빈곤모자가족 가족복지정책 수립에 관한 연구. 중앙대 석사학위 논문.
- 12) 신화용 · 조병은(1996). 편부모가 인지한 가족환경과 사회심리적 적응. 한국가족관계학회 '96 가정복지세미나, 5-31.
- 13) 안명자(1994). 친족지원과 사별한 편모의 심리적 복지감. 한국교원대 석사학위 논문.
- 14) 양순미(1996). 농촌여성의 갈등원인, 관련변수별 갈등 정도와 대처방안 연구. 농촌생활과학 17권 3호, 15-19.
- 15) 오윤자 · 유영주(1994).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 개발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권 2호, 205-218.
- 16) 옥선화 · 이형실 · 이춘희(1994). 노인부양가족을 위한 가족생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기초연구: 부양자 요구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2권 2호, 61-77.
- 17) 유은희 · 홍숙자 · 전길양(1996). 중년머느리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고부관계향상 교육프로그램』, 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소.
- 18) 이수애(1993). 지역사회 여성을 위한 사회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목포대 여성연구 1, 203-268.
- 19) 정현숙(1993). 이혼과 자녀문제의 이론적 고찰. 『이혼과 가족문제』, 하우, 105-154.
- 20) 정현숙 · 서동인(1996). 편부모가정의 자녀가 인지한 가족환경과 사회심리적 적응. 한국가족관계학회 '96 가정복지세미나, 33-64.
- 21) 조희선(1991). 모자가족과 부부가족의 가족스트레스에 관한 비교연구. 성신여대 박사학위 논문.
- 22) 최운실 · 강일선(1989). 여성 평생교육의 현황과 주요문제. 『평생교육과 여성사회교육』, 한국 평생교육 기구.
- 23) 최혜경 · 노치영 · 박의순(1994). 결혼초기 부부를 위한 부부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권 1호, 171-180.
- 24) 통계청(1966, 1990). 인구주택 총조사 보고서.
- 25) 한경혜(1993). 한국 이혼부부의 적응과 관련변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이혼과 가족문제』, 하우, 79-104.

- 26) 한국여성개발원(1984). 평생교육을 위한 여성사회교육 실태조사 연구.
- 27) 한국여성개발원(1985).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 28) 한국여성개발원(1987). 여성 사회교육 요구 분석.
- 29) 한국여성개발원(1988). 여성회관 사업 프로그램 개발.
- 30) 한국여성개발원(1991). 부녀지도사업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31) 한정자(1984). 여성단체 교육프로그램 분석 및 여성의식화 교육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여성학논집 제1권, 111-142.
- 32) 한정자(1994). 농촌사회 변화와 여성의 삶. 농촌생활과학 15권 4호, 10-12.
- 33) 현온강 · 이순덕(1992). 양친가정과 결손가정의 스트레스 인지도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가정교육학회지 3(1), 131-146.
- 34) 홍숙자 · 이형실 · 전길량(1995). 성인자녀를 위한 노인부양 교육프로그램. 대한가정학회지 33권 5호, 197-209.
- 35) Amato, P. R.(1987). Family process in one-parent, stepparent and intact families: The child's point of 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2), 327-337.
- 36) Berg, B. & Kelly, R.(1979). The measured self-esteem of children from broken rejected and accepted families. *Journal of Divorce* 2, 363-369.
- 37) Berman, W.H. & Turk, D. C.(1981). Adaptation to divorce: Problems and coping strateg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1), 179-189.
- 38) Booth, A. & Amato, R.(1991). Divorce and psychological str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2, 396-407.
- 39) Campbell, M. L. & Moen, P.(1992). Job-family role strain among employed single mothers of preschoolers. *Family Relations* 41(2), 205-211.
- 40)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 of self-esteem*. Freeman & Co.
- 41) Gerstel, N.(1988). Divorce and kin ties: The importance of gende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1), 209-219.
- 42) Hansen, S. M.(1986). Healthy single parent families. *Family Relations* 35(1), 125-132.
- 43) Hetherington, M. & Anderson, E.(1989). Marital transition: A child's perspective. *American Psychologist*, 44, 303-312.
- 44) Kennedy, G. E.(1985). Family relationships as perceived by college students from single-parent, blended and intact families. *Family Perspectives* 19(2), 117-126.
- 45) McLanahan, S. & Sandefur, G.(1994). *Growing up with a single parent*. Harvard University Press.
- 46) Peterson, J. L. & Zill, N.(1986). Marital disruption, parent-child relationships, and behavior problems in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2), 295-307.
- 47) Radloff, L.(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 385-401.
- 48) Rosenberg, M.(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esteem*. Princeton Univ. Press.
- 49) Wallerstein, J., Corbin, S., & Lewis, J.(1988). Child of divorce: A ten year study. In E. M. Hetherington & J. Arasteh(eds.), *Impact of divorce, single parenting and stepparenting on children*(pp.198-214). Hillsdale, NJ: Erlbaum.
- 50) Webster-Stratton, C.(1989). The relationship of marital support, conflict, and divorce to parent perceptions, behaviors, and childhood conduct problem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2), 417-430.
- 51) Weinraub, M. & Wolf, B. M.(1983). Effects of stress and social supports on mother-child interactions in single- and two-parent families. *Child Development* 54, 1297-1311.
- 52) Weiss, R. S.(1979). Growing up a little faster: The experience of growing up in a single-parent household. *Journal of Social Issues* 35, 97-111.